

번호 18-4

제 목	국문	일부 농촌 주민의 수근관증후군 유병률과 위험요인			
	영문	Prevalence and risk factors of carpal tunnel syndrome among farmers in a rural area			
저 자 및 소 속	국문	임현술 · 김수근 · 이종민*			
	영문	Hyun-Sul Lim, Soo-keun Kim, Jongmin Lee*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Rehabilitation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Dongguk University			
분 야	보건관리 ()	발 표 자	일반회원 (○)	발표 형식	구 연 (○)
	역 학 (○)		전 공 의 ()		포스터 ()
환 경 ()					
진행 상황	연구완료(○), 연구중() → 완료 예정 시기 : 년 월				

1. 연구 목적

신경은 타박이나 반복적인 압력 등의 외부적인 힘이나 종양, 혈종 등의 국소적 압력 또는 주변의 해부학적 구조에 의한 포착에 의해 압박될 수 있다. 수근관부에서 정중신경의 압박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근관증후군은 상지에서 흔한 포착성 신경병증이다. 발생원인으로는 수지부의 급성외상, 직업적으로 손의 과도 사용, 결절종 등의 종양, 류마티이드 관절염 등이 알려져 있으나, 원인불명인 경우도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은행원, 전화교환원에서 수근관증후군이 직업병으로 보고되기 시작하여 특정인을 대상으로 유병률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는 있었으나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유병률 조사는 거의 없었다.

우리나라 일부 농촌 주민의 수근관증후군 유병률과 위험요인을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연구 방법

일부 농촌 지역에서 건강진단을 위하여 방문한 주민 중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30세 이상 80세 미만의 남자 165명, 여자 285명으로 총 450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1999년 3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 조사하였다. 연령, 직업, 병력, 생활습관 등의 일반적 요인, 체질량 지수, 여성의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요인, 손목의 위치 및 작업강도, 작업종류 등 농작업과 관련된 요인을 설문 조사하였다. 손목 깊이/폭 비율, 수지 및 수장부 길이 등의 인체계측학적 요인과 전기진단검사를 재활의학 전공의가 시행하였다. 각 연령군별로 무작위로 추출된 50명의 무증상 성인(남자 25명, 여자 25명)으로부터, 수근관증후군의 전기진단기준을 구하였으며, 증상과 전기진단검사를 이용한 Rempel 등의 진단기준을 수근관증후군의 진단기준으로 사용하였다.

본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전산 입력한 뒤 SPSS for windows 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통계적 검정 방법은 두 군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양적 변수는 Student의 t-검정, 질적 변수는 카이제곱 검정법으로 단변량분석을 하였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 결과

조사 대상자의 연령별 분포는 30대 34명(7.6%), 40대 51명(11.3%), 50대 152명(33.8%), 60대 150명(33.3%), 70대 63명(14.0%)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57.9 ± 1.6 세이었다. 수근관증후군은 82명이 진단되어 수근관증후군의 유병률은 18.2%이었다. 증상은 있으나 전기진단검사가 정상인 경우가 168명(37.3%), 증상은 없으나 전기진단검사에서 이상을 보인 경우가 37명(8.2%)이었다.

수근관증후군의 연령별 유병률은 30대 8.8%(3명), 40대 13.7%(7명), 50대 23.0%(35명), 60대 18.0%(27명), 70대 15.9%(10명)이었으며, 연령에 따라 유병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성별 유병률은 남자 12.7%(21명), 여자 21.4%(61명)로 여자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여자, 농업 종사자, 체질량지수가 25 kg/m^2 이상군에서 수근관증후군의 유병률이 높았으며, 손목 깊이/폭 비율이 높을수록, 수장부 길이가 작을수록 수근관증후군의 유병률이 유의하게 높았다($p < 0.05$). 임신 및 출산 횟수가 많을수록, 손목을 구부리거나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작업에서 유병률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4. 고찰

1863년 James Paget에 의하여 처음 기술된 수근관증후군은 전체 인구의 0.1%에서 발생하며, 치료 가능한 신경병증의 하나라는 점에서 조기진단과 치료가 강조되어 왔다. 수근관증후군의 진단은 임상증상과 이학적 검사를 통하여 어느 정도 가능하고 대개 전기진단학적 검사를 통하여 확진을 하게 된다. 본 연구도 증상, 이학적 검사 및 전기진단학적 검사를 실시하여 진단은 정확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건강진단을 받으러 온 주민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고령이 많으며, 증상자가 더 많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선택 바이아스로 인하여 다른 연구에 비하여 유병률이 높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연구는 농촌 주민의 수근관 증후군 유병률 및 위험요인에 대한 기초적 자료로 이용될 수 있으며, 수근관증후군의 업무관련성을 파악하는데 기여하리라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역학 조사를 위한 진단 기준 선정과 수근관증후군의 유병률과 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